

백운고가 일대 '중고전문거리'로 다시 활기

1인 가구 증가에 소형 가전·가구 선호...매장 50여곳 성업 업체 수거서비스 판매자 편리...인도에 제품 방치 부작용도

혼자 사는 1인가구가 늘면서 새것보다는 중고 가구·가전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일대에 중고전문거리가 마저 형성되고 있다.

이들 중고전문매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빈 상가가 늘었던 주월동 일대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또 최근 신축기를 맞아 매출도 늘어 더 많은 중고매장이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주월동 중고전문거리는 일요일에도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쉬는 날 차분하게 중고 제품을 둘러보기 위해 휴일에도 이곳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는 것.

대부분 업체에서 판매하는 것은 가구와 가전이 대부분이었고, 최근 중고매장이 늘

어나면서 식당 용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등 업종별 전문 업체들마저 생겨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은 TV, 냉장고, 책상, 침대 등이었다.

신제품 출시에 따라 중고 가구·가전을 바꾸면 자연스럽게 중고 물품은 이곳으로 흘러들고 있어 발품만 잘 팔면 질 좋고 유망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는 전자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 가전 무상 수거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고, 제품의 상태에 따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있다.

주월동 한 업체 업주는 "중고 제품의 이미지를 찍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보내 주변 상태를 본 뒤 직접 차를 몰고 가셔서

가나 수거해 오고 있다"면서 "경쟁이 치열해 3~4개의 업체를 등록한 뒤 다수의 인터넷 홍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도 생겨났다"고 말했다.

중고 가구·가전을 처리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득이다. 손수 중고품을 옮겨야 할 필요없이 업체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기 때문이다.

또 소비자들도 중고에 대한 편견 없이 이곳을 찾고 있다. 이사가 잦은 1인 가구의 경우 새 제품을 구입할 필요없이 새로운 공간에 맞는 중고 제품을 다시 구입할 수 있다. 가구·가전이 대형·고급화 되면서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다 크기가 크기 때문에 소형 주거지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는 아담한 중고 제품이 더 실용적인 점도 중고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다.

이곳에 중고 매장이 들어선 것은 10여 년 전부터다. 과거 주월동 백운고가로로 중심으로 5~6곳의 매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곳에만 20여개의 중고 전문매장이 성업중이다. 또 폐업과 개업이 잦은 식당 업주를 위한 식당 중고 전문매장 5곳도 영업중이다.

이처럼 주월동 일대에 중고전문매장 타운이 형성되는 것은 차량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이 때문에 주월동 백운고가도로를 중심으로 한 순환도로에만 40~50여개의 중고전문매장이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 중고 상품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일부 업소들이 낡고 고가 세탁기 등을 인도에 늘어놓아 보행자를 방해하거나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한편 국내 '1인 가구'는 15년 기준으로 500만 가구로 총 가구수의 약 27%를 차지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82.54 (-1.27)
- ↓ 금리 (국고채 3년) 1.49% (-0.01)
- ↓ 코스닥 676.51 (-6.69)
- ↓ 환율 (USD) 1166.20원 (-3.00)

정부·기업 능력중심 채용 선언

공공기관 130곳 NCS 활용 채용방식 도입

학벌·스펙 위주에서 벗어나 능력과 직무 중심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 기업이 힘을 합쳤다.

28일 서울 중구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는 '능력중심채용 실천 선언 선포식'이 열렸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고용노동부·교육부·청년위원회가, 경제단체는 대한상의·전국경제자총연합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석했다.

삼성·현대·SK·LG 등 대기업 25곳과 한국전력·한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 지스타·스타일·모두투어 등 중소기업도 동참했다. 실천선언은 취업준비생의 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와 경제단체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마련된 1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앞서 정부는 130개 공공기관에 능력중심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했다.

명확하게 알리기로 했다. 또 학벌이나 스펙 중심의 서류전형을 지양, 적합한 직무 능력을 갖춘 이들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전, 연령,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요구하지 않으며 면접 시에는 구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채용서류 반환, 취업장타 금지, 채용 전 실습생·견습생·인턴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능력중심채용이 평가, 보상, 교육훈련, 배치전환, 퇴직관리 등 인사관리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130개 공공기관에 능력중심 채용방식을 도입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지원했다.

'일자리 세습' 기업 694곳 시정명령

고용부, 2769곳 단체협약 조사...10곳 중 4곳 위반

'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은 단체협약에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유일교섭단체 등 규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769곳의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현행법을 위반한 단체협약이 1천165개(42.1%),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협약이 368개(13.3%)에 달했다. 위반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을 하나라도 포함한 협약은 1302개(47.0%)였다.

위법 내용별로는 특정 노조에겐만 단체협약 협상 권한을 주는 '유일교섭단체' 규정이 있는 사업장이 801곳(28.9%)에 달했다. 이어 우선·특별채용(694곳·25.1%), 노조 운영비 원조(254곳·9.2%) 순이었다.

상급단체법 위반율을 보면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이 47.3%로 가장 높았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40.6%, 상급단체에 소속

되지 않은 미가맹 사업장은 38.2%였다.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300~999명 사업장 위반율이 47.0%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사업장, 기업 규모별로는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에 이 규정이 있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442곳(63.7%)에 이르렀다. 대기업 중에서는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업무와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은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광주은행 서울 영등포점 개점...수도권 20번째



광주은행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 잡게 된 영등포지점에서 김한(왼쪽에서 다섯번째) 은행장과 임직원,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 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28일 서울 영등포구에 자리잡게 된 영등포지점에서 김한 은행장과 임직원,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영등포지점은 광주은행의 20번째 수도권 전략점포이며, 기존 4개의 대형 점포들을 합하면 24번째 수도권 점포다.

역으로 이어지는 금융라인을 추가하며 지역 요충지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의 수도권 전략점포는 직원 4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수도권 영업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

광주은행 김한 은행장은 "수도권지역의 경우 많은 지역출신 상공인들이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라면서 "광주은행 전략점포를 수도권에 배치해 이들에게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수도권 저리자금을 끌어들이어 광주·전남지역에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춘곤증 이기자" 과일·채소 소비 ↑

이마트, 1주일새 과일 매출 89%·채소 32% 늘어

완연한 봄이 되면서 춘곤증에 도움을 주는 채소와 과일 등 관련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28일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본격적

으로 날씨가 풀리기 시작한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과일류89.2%, 채소류 31.8%, 해조류30%가 신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봄철에는 신선대사가 활발해지

면서 평소보다 비타민 소모량이 3~5배 늘어난다.

이에 탄수화물 대사를 돕는 비타민B와 면역 기능을 돕는 비타민C가 많이 포함된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으로 분석됐다.

비타민B는 콩, 땅콩, 잡곡류 등의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비타민C는 채소류나 과일류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또 오후 나른함에 비타민이 포함된 기능성 음료와 청량감이 가미된 이온음료들도 인기다.

이마트 최은화 마케팅 팀장은 "따뜻한 날씨와 햇볕으로 나른함을 호소하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럴 때 일수록 피로회복에 좋은 먹거리들과 기능성상품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 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제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외벽 패턴: 일반외벽, 단열외벽, 창문외벽, 신축외벽, 석재외벽, 석재외벽(이탈콘크리트)

홈페이지 방문하시면(이메일·전화·카탈로그) 다량구매 어렵다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색창에 **이파엘지**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를 쳐주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스대신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일요일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